

# ARCHITECTURE TRAVEL



조흥래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by Jo, Heung-rae

2010 도쿄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 '입선'  
2010 태양열학회 친환경 건축 공모전 '가작'  
2010 건축학회 주관 학생공모전 '우수상'  
2010 경기도 건축대전 '동상'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서 참가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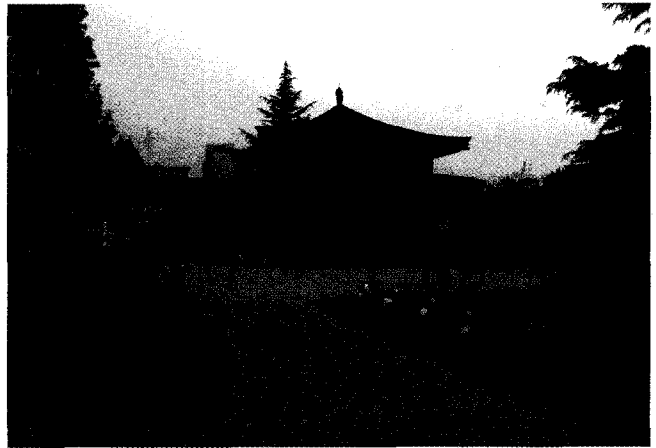
## 과거와 현재의 접점에서 미래를 보다

중국 서안 기행문

Seeing Ahead Future at Interface Between Past and Present  
- Travelogue of China, Xian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중국 대륙으로의 초대는 한 학기동안 좁은 학교 설계실에서 보낸 우리들에게 더 없는 건문의 기회이자 새로운 모티브의 충전의 장이었다.

27일 새벽1시 부산발 인천공항행 버스에 몸을 싣고 5시간을 달려서야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8시에 모여야 했기에 남은 시간 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어느덧 약속시간이 되어갔다. 그리고 약속장소인 13번 출구에 건축문화대상이라는 풋말과 함께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팀원의 사정으로 이번 답사를 혼자 참여하게 되어 여행 중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긴장했지만, 프레젠테이션 당시 날카롭게 질문하시던 권연하, 고은영 심사위원님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협회 이규식 팀장님의 인솔로 화기애애하게 출발 할 수 있었다.



[그림 1. 서안 역사 박물관]

이륙 후 당시 혼란스러웠던 서해를 건너 황토빛 끝없는 평야를 지나 함양 국제공항에 도착 했다. 공항은 예상 외로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공항청사도 현대식으로 건축하였고 아직도 일부 건설 중에 있었다. 대국답게 지은 공항이었다. 공항에서의 놀라움도 잠시 가이드를 만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오염된 대기 환경과 한국에서의 쌀쌀했던 날씨와 다르게 포근한 날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아침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우리를 위해 바로 중국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실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들려오는 중국인들 대화와 회전식 테이블 그리고 향이 강한 중국음식을 먹으며 비로소 중국에 도착한 것을 느꼈다. 식사 후 차, 사람, 자전거의 구분이 없는 중국의 엄청난 교통난에 행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 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붉은 간판과 한자로 장식된 거리를 이동하면서 섬서성 역사박물관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그림 1]

서안지역에서 현대화된 1급 박물관이라는 섬서박물관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국립경주박물관과 건물모습이나 느낌이 아주 비슷하게 다가왔다. 간혹 마주치는 한국 관광객들과 중국 현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붐비고 있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전시되고 진열된 것만 보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보고 듣는 시간을 즐겼다.

이후 대안탐으로 이동했다.[그림 2]

서안시의 상징이기도 한 이 곳은 중국에서 유명한 불탑 중 하나로 삼장법사 현상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운 탑으로 인도에서 불도를 닦고 돌아와 범어로 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 했는데, 그 보존 장소가 마땅히 없어 건립을 건의하여 지어진 탑이다. 7층의 누각식 전탑으로 총 64m, 기반부 둘레는 25m로 화재 등으로 인해 몇 차례나 다시 지어 졌다. 특이하게도 벽돌로 지어져 있었다. 한국의 조형적미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약간은 투박하고 어색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규모나 잘 구획된 서안 시에서의 주변과의 조화는 무척 인상 깊었다.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에 탑을 오르고 싶었지만 다음 답사일정상 사진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정신없이 인천을 떠나 중국 서안에서의 두 답사지를 둘러 해가 지고 저녁을 먹고 나서야 숙소에도 도착 할 수 있었다. 첫날은 주변의 불안한 치안사정과 피로로 호텔에 머무르며, 내일 답사할 진시황릉과 병마용에 대한 기대로 고단했던 중국에서의 첫날은 저물었다.

첫 날의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어찌보다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일정에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다. 호텔에서의 조식 후 또 다시 차에 올랐다. 이튿날 첫 방문지는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던 화청지[그림 3]로서 온천으로 유명하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곳의 온천은 대략 3000년 전의 서주시대에 발견되었다. 한나라 시기에는 이곳에 황제와 귀족들의 행궁을 건설했다. 당나라 때에는 웅장하고 호화로운 '화청궁'을 지었다. 역대로 계속된 전쟁을 거쳐 원래의 건축은 모두 허물어졌다. 지금의 건축물은 모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1959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의 장소 위쪽에 가리는 물건이 없어 목욕 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 성진탕 뒤로는 예전 온천의 수원이 있다. 귀비지를 나와서 앞으로 가면 망호로

들어가며, 먼저 하화지를 보고 난 후 비하각을 거치는데, 전설에 비하각은 양귀비가 목욕 후 경치를 즐기며 머리를 말렸던 곳 이라고 한다.[그림 4]

중국 사람들도 지금은 양귀비가 못생겼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웃음을 뒤로하고 다음 답사지인 진시황 지하궁전으로 향했다.

사실 이곳은 실제의 지하궁전이 아니라 실제 지하궁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규모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전시관이었다. 지하궁전이라 어두운 실내에는 지하궁전의 모형이 있었는데 실로 엄청난 규모의 모형으로 나라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지하라 습하고 답답했던 전시관을 나오니 벌써 점심시간 때가 되었다. 점심은 중국이 사초인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 최초라는 기대와는 달리 중국 특유의 향에 여행 내내 항상 힘든 식사시간을 보내며 고추장에 입맛을 달랬다.

힘든 식사시간을 보낸 뒤 다음 답사지인 진시황릉 앞[그림 6] 광장에 도착하였다. 내리면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 대륙은 대륙 관광로를 따라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다. 거기서 다시 도보로 황릉정원을 걸어 들어가서야 황릉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 본 진시황릉은 높이가 73m에 이르러 규모가 엄청나서 여산 기슭에 자리한 또 다른 산처럼 느껴졌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후대의 관광 자원을 위하여 아직 발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황릉 주변의 광활한 과수원과 논밭을 보면서 다음 목적이인 병마용으로 발길을 돌렸다. 황릉으로 부터 병마용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커피한잔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걸어 잠시 후 거대한 몇 동의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 7]~[그림 10]

“진(秦)나라의 병사는 죽지 않았다. 다만 진나라만 망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책에서 본적이 있다. 토용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듯 한 병마용 책에서만, TV에서만 봤던 것이 이제 눈앞에 온 것이다. 우선 출토 규모가 가장 큰 제1호 전시관부터 둘러 봤다.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고 이후 그 섬세함에 또 한 번 놀랐다. 병마용 하나하나가 실제 사람 크기와 하나하나 다른 얼굴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어떤 민족인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살아서 위협할 것만 같은 위용이었다. 지금은 시간에 의해 색이 바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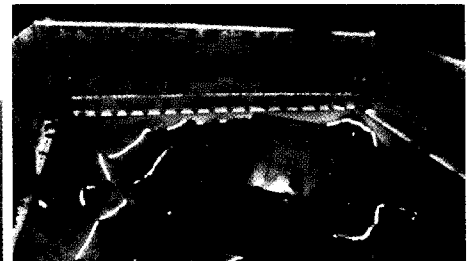
[그림 2. 대안탐]



[그림 3. 화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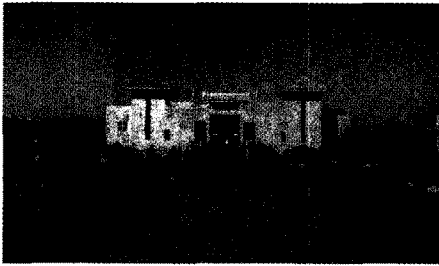
[그림 4. 화청지 비하각-양귀비가 머리를 말렸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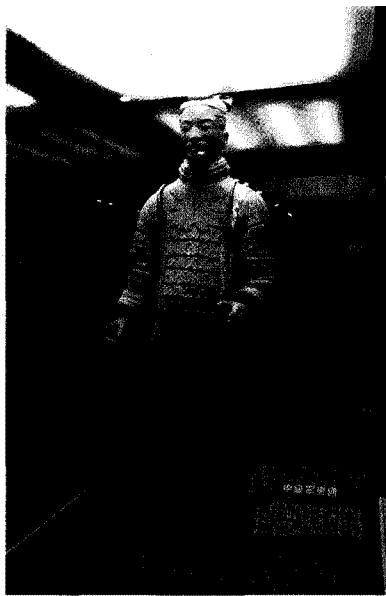
[그림 5. 진시황릉 지하 궁전]



[그림 6. 진시황릉, 무덤아래기 보다 산에 가깝게 느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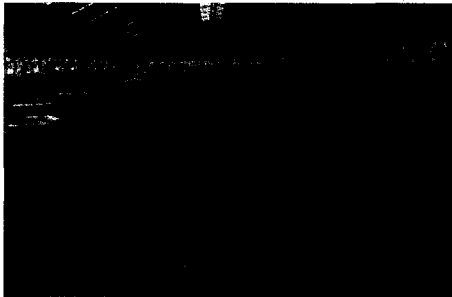
[그림 7. 병마용 전시관 입구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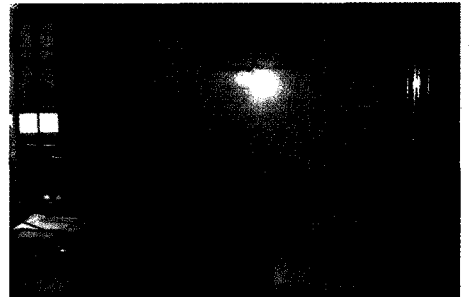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0. 아직 발굴 중인 병마용]



[그림 8. 병마용의 위용]



[그림 11. 팔로군 서안 번사소 기념관]

지만 만들 당시에는 채색까지 되어 있어 당시의 장인들의 노력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병마용의 발굴이 시작되면서 햇빛 노출과 산화, 발굴 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훼손의 이유로 중국은 20여 년간 발굴을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재개하였다고 한다. 제2전시관의 어두컴컴한 전시관속에는 많은 종류의 도용과 도마들이 있었으며,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제3전시관은 규모가 좀 적었으나 병사와 말들이 있었다. 그곳은 군진의 지휘부라 했다.

이렇게 한참을 감탄사만 연발한 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병마용갱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도로변 가에 박물관과 출입도로를 따라 차단하는 담벼락에는 중국인 잡상인 몇 명이 매달려서 박물관 정문을 나서는 우리들을 저만치 떨어져서 물건을 사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부르는 물건 가격이 몇천원에서 만원 이하였다. 우리가 그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물건을 안 사주고는 박물관정문을 나올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한국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개의 기념품 가격을 흥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상인이 부르는 첫 가격에 깎고 또 깎아서 1/5가격에 살 수 있었다. 바가지 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싸게 구매 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많은 도보 이동과 부담스러운 현지식으로 허기가 졌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그렇게 삼겹살과 김치가 반가울 수 없었다.

오랜만에 허기진 배를 달래고 속소로 이동했다. 이제는 조금 중국이 익숙해졌는지 모두 바깥구경을 나갔다. 한참 개발 중이라 여기저기 공사 중인 중국거리와 익숙한 한국자동차들을 보며 우리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트로 향했고 오늘 저녁을 위해 다과를 준비했다.

이후 다시 속소로 이동 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사위원님과 여행을 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같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써 건축이라는 공감대로 우리를 더욱 엮어 주었다. 이렇게 피곤했지만 훈훈했던 둘째 날은 지나갔다.

셋째날 조식 후 항일운동의 정신이 담긴, 팔로군 서안번사소기념관을 [사진 11] 찾았다. 해방이후에 건설된 전쟁기념관으로 항일전쟁 당시의 혁명군

거지이다. 이곳에는 공산당 설립이전부터 항일전쟁 전후까지의 현대사가 점철된 역사적인 곳이다. 서안역변의 혁명공원 옆에 있으며, 겉으로는 독일 치과의사의 병원인척 하면서 실제로는 연안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해 주는 곳이었다. 주은래, 주덕, 등소평 등 공산당 간부들이 묵었던 곳이기도 하며,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작품의 저자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도 이곳에서 묵었다. 1935년 10월, 모택동이 이만오천리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연안에 입성하면서 연안은 중국혁명의 총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장개석도 서안을 섬서성과 감수성 침공의 주요기지로써 사용하게 된다. 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공산당의 항일민족통일전쟁 정책의 영향아래 전국 항일운동이 고조되면서 국민당의 동북군과 서북군이 발병하는 '서안사변'이 일어나고 이어 모택동과 장개석의 제 2차 국공합작이 진행되면서 농공민들의 흥군이 집합한 '흥군연락처'가 집결된다. 이 기관은 이후 1년 뒤에 이름을 '팔로군주서안반사처'로 바꿨는데, 이곳은 공산당의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외부에서는 하나인 듯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내부에서 각 체로 나뉘지는 것이 재미있었고, 중국의 근대역사의 장소를 보며 우리의 아팠던 과거 역사가 떠올랐다.

숙연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답사지는 명대 성벽이었다. 급변하는 중국에서 현재와 과거의 공존이란 말이 실감이 가는 답사지였다. 주변의 도심부와 과거의 성벽이 어우러지면서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명대성벽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4세기 명나라에 의해 조성된 고성인 성벽은 현존하는 중국의 성벽 중 가장 보존상태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동서남북의 4개문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주변에는 넓고 깊은 호성화가 흐르고 정문에서 시작되는 정로를 가로지르는 조교가 놓여있다. 1982년 7월에는 섬서성정부의 주창아래 서안시민 몇 십만 명이 힘을 합쳐 독특한 풍격의 환성공원을 조성했는데, 성 정상부분에는 조그마한 화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한국의 성벽과는 다르게 석벽 위는 상당히 넓었다. 폭 15m로 자전거나 전기차를 빌려 둘러 볼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성벽 위에서의 색다른 하이킹을 즐겼다. 안성벽은 단지 역사적인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서 공원과 성, 길, 물이 어우러진 공원이 조성됨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며 흘렸던 땀을 식히며 비림[사진 13]으로 향했다. 1087년 북송 철종 2년에 세워졌다. 현재 한(漢)대부터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각 조대의 비석과 1천여 개의 묘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비석들이 모여 마치 숲을 이룬 것 같다 하여 '비림(碑林)'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개성 석경은 114개의 석판에 유교경전 13경(655,025자)을 조각한 것으로, 명사들의 진적비 등이 집중되어 있다. 비림은 중국 고대 서예 예술의 보고이자 고대 문헌서적과 비석의 조각 도안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으로, 대외 문화 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지이다.

비림을 보고 나와 담을 끼고 호젓한 길을 따라 조금 걷다보면 전형적인 중국풍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바로 중국 4대 유명한 서체, 서책 및 문방사우를 파는 서안의 명물거리인 문서거리였다.

예전엔 이 문서거리가 흥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방문한 때는 이상하리만큼 한산했고, 서책이나 문방사우를 파는 상점은 드물었다. 대신 잡화상이 거리 가운데로 죽 늘어선 있어 문서거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가이드의 특별한 설명 없이 짧지만 자유 시간을 주어 나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늘어선 서책이나 문방사우 관련 상점은 건성건성 거웃거리다 이내 잡화상 쪽으로 눈을 돌려 신나게 구경하고 잔잔한 물건도 한잠동안 재미나게 흥정한 후 사가지고 온 문서거리답지 않은 문서거리였다.[사진 14]

그리고 우리의 인사동과 비슷한 풍경의 이슬람거리로 향했다. 이곳은 먹거리 위주의 거리로 동서양 실크로드 시작점의 서안 위치상 동서양 문물이 뒤범벅된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거리였다. 이 소규모 회족거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양고기 요리가 주를 이루며, 각종 꼬치 전병 중국식음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거리 내에 있는 고씨장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전통적인 사합원으로 거주면적은 2,310㎡에 달한다. 고씨장원은[사진 15] 명, 청시대 건축과 예술 조각, 전통민가의 모습과 각종 생활 풍습을 볼 수 있고, 티베트불교의 탕카 제작과 섬서성의 민간 공예인 종이공예, 피영극(가죽


으로 만든 인형 그림자극)을 볼 수 있었고 우리 한옥에서 볼 수 없는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 저물어 서안 시내로 향했다. 서안시내는 3,000만 명이 있는 시답게 상당히 붐볐다. 시내에서 이제는 조금은 적응된 중국 현지 식을 먹은 후 시내구경에 나섰다.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처럼 눈에 익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조금 걸어서 한키퍼숍에서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후 피로누적으로 숙소 도착 후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숙면으로 보내야 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건축관련 동영상 시청 후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마지막 답사지인 실크로드 시작점보기 위해서다. 고대 유럽으로 통하는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시작된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개척자 장건의 조각상 등을 볼 수 있는 썰렁하기 그지없었던 실크로드 시작 점[사진 16]이었다. 하지만 시작점이라는 의미와 여행의 종착점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더했다. 3박4일간,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는 중국서안을 뒤로하며 공항으로 향하였다. 3박4일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건축이라는 공감대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은 답사가 되었다.

중국 답사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고, 결국 우리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답사가 되었던 것 같다.

큰 도시를 3박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느끼기에는 짧을 수 있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답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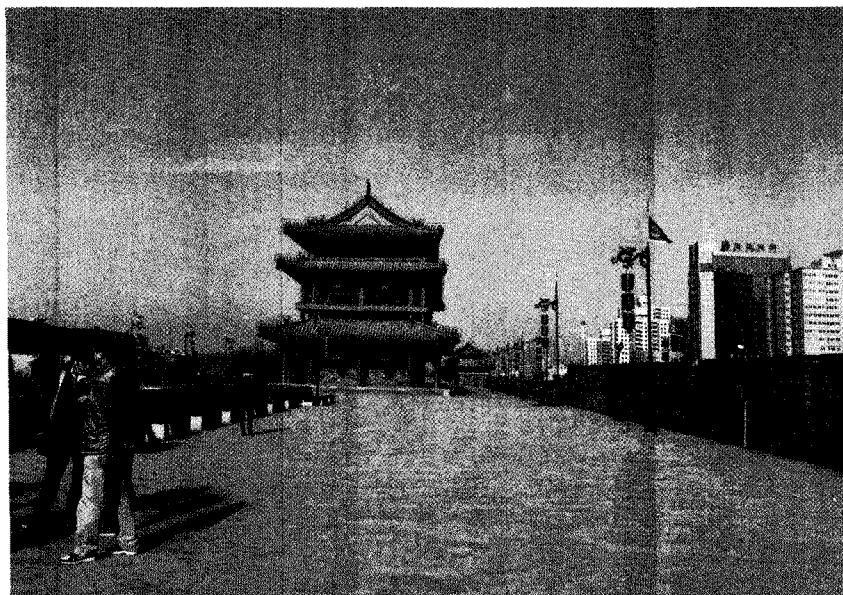
소중한 답사를 계획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답사 기간 중 많은 것을 알려주신 권연하, 고은영 심사위원님들과 인솔해주신 이규식 팀장님, 그리고 앞으로 건축계를 이끌어갈 건축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 13. 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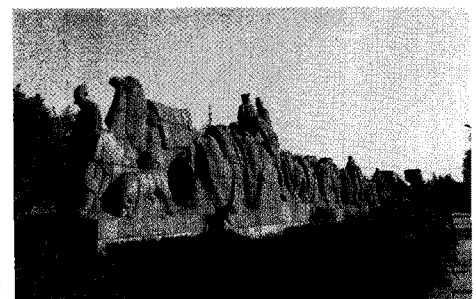
[그림 14. 문서거리]



[그림 12. 명대성벽]



[그림 15. 고씨장원]



[그림 16. 실크로드 시작점]